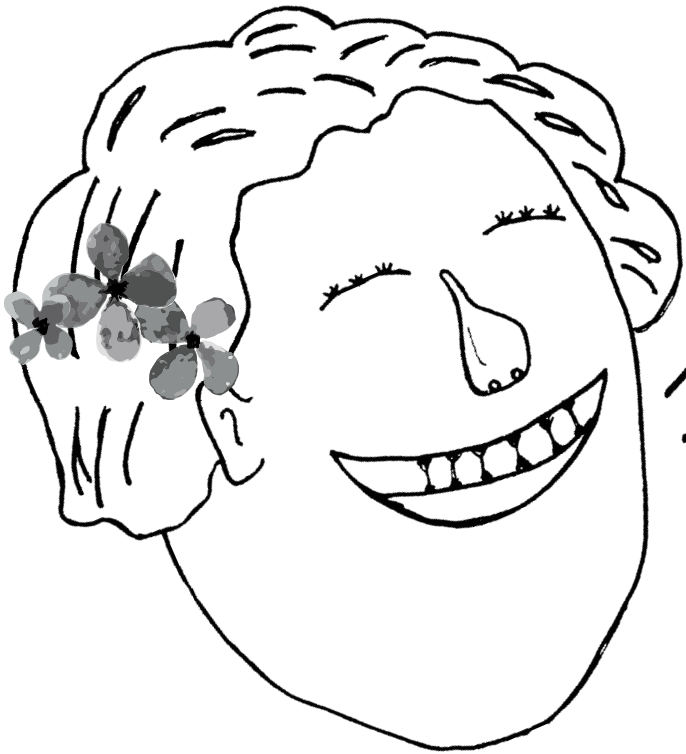


2015 서울예술고교포럼  
노년의  
삶과  
문화  
예술  
교육



ARTS  
IN EDUCATION  
- FOR THE  
ELDERLY  
- BY THE ELDERLY

그림  
서울문화재단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카툰교육수강자이며,  
"박장대소 매력"을 가진  
진순자 여사의 작품

# ARTS IN EDUCATION FOR THE ELDERLY BY THE ELDERLY

2015.05.27(수) 15:00-17:50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

인문학  
재단  
서울문화재단

T 02)3290-7000 F 02)6008-7346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http://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T 02)758-2000 F 02)6008-7347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8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2층

## CONTENTS

04 서울문화재단(서울창의예술학교) 소개

05 서울예술교육포럼 개요

주제발표

07 주제발표 1

노년의 이해와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한정란(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한국노년교육학회장)

22 주제발표 2

노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동향 및 이슈

추미경((사)문화다움 대표,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라운드 토론

33 토론 1

고영직(문학평론가, 문화예술교육 웹진 <지지봄봄> 편집위원)

35 토론 2

김서준(발광아트컴퍼니 대표)

38 토론 3

백령(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문화재단/서울창의예술학교 소개

##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SFAC)

### 설립연도

2004년

### 사업분야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축제형 기획사업 운영

문화예술공간 운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생활 속 문화향수기회 확대

창의적인 문화도시 서울, 서울문화재단이 만들어갑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서울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문화도시로 만듭니다.

예술의 창작지원부터 생활 속 문화향수를 위한 축제와 문화사업,  
그리고 예술을 매개로 한 창의적인 예술교육사업까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향기를 서울 곳곳에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세상, 따뜻한 감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서울문화재단이 만들어가는 창조문화도시 서울의 미래입니다.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합니다.

## 서울창의예술학교

Seoul Creative  
Engagement with the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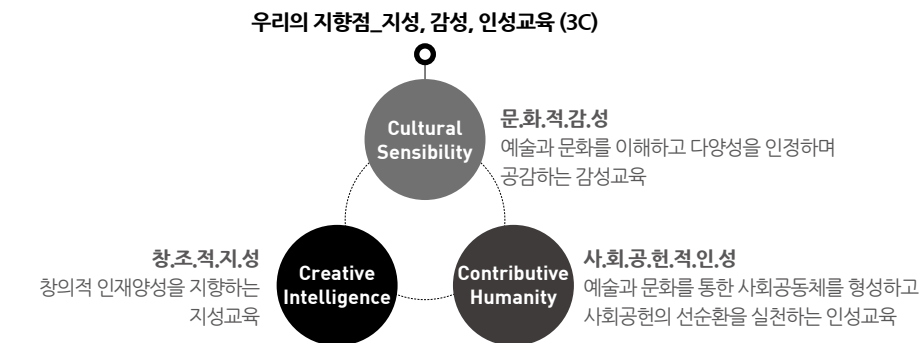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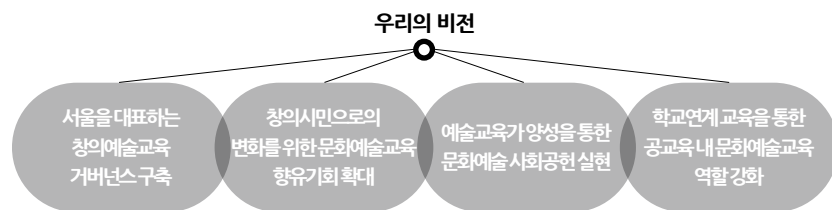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서울창의예술학교>는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통합브랜드**입니다.  
<서울창의예술학교>는 미적체험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체험교육을 지향**합니다.  
<서울창의예술학교>는 통합예술교육으로 깊이있는 예술의 이해와 다름을 통한 **소통을 실천**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 모두가 예술을 통하여 미래의 경쟁력인 상상력(Imagination)과  
창의성(Creativity)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배우며, 성장하는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한 개인의 미적체험을 통해  
인성의 풍요로운 발전은 물론 삶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서울창의예술학교>는 **예술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합니다.



# 서울예술교육포럼 개요

##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참가자등록	14:40~15:00	사전등록 확인 및 현장등록	
오프닝	15:00~15:10(10분)	사회 라도삼(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포럼 간략소개
주제발표 1	15:10~15:40(30분)	<b>노년의 이해와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b> 한정란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한국노년교육학회 회장	- 노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수행 시 고려해야 되는 교육대상의 - 이에 따른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주제발표 2	15:40~16:10(30분)	<b>노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동향 및 이슈</b> 추미경 (사)문화다움 대표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 노인 문화예술교육 동향 및 이슈 -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향후 과제
휴식	16:10~16:20(10분)	휴식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영상	
라운드토론	16:20~17:10(50분)	<b>토론 1. 고영직</b> 문학평론가, 문화예술교육 웹진 <지지봄봄> 편집위원 <b>토론 2. 김서준</b> 발광아트컴퍼니 대표 <b>토론 3. 백 령</b>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17:10~17:50(40분)	플로어 질의응답	

한정란(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한국노년교육학회장)

# 노년의 이해와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 낯선 이름 노인

노인(老人)은 사전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의미하는(네이버국어사전, 2015년 5월 1일 검색), 우리나라에서 노년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들이 덧붙여짐으로써 우리 사회의 연령차별 문제와 관련된 노년의 호명(呼名)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을 대체할 노년의 호명과 관련해서는 이미 1998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모를 통해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선정한 바 있고, 최근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노인 및 노인복지관의 대체 명칭을 공모하여 ‘어르신’과 ‘어르신행복관’이 차선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노인’이라고 하는 노년의 명칭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이라고 하는 기표(記標)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그것이 담아내는 의미의 문제에 있을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경진웅(2011)은 노년의 주변화 및 타자화(他者化)와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즉, 현대 사회에서 노년이 축적해온 지식과 경험의 가치가 퇴색되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 또한 크게 축소되면서 ‘주변화’, ‘타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성별을 구분하는 용어로 ‘중년 남성’이나 ‘중년 여성’과 달리 노년에 대해서는 ‘남성 노인’이나 ‘여성 노인’이라는 호명을 사용한다. 이는 ‘노인’이라는 기표를 뒤에 위치시키고 ‘남성’이나 ‘여성’을 수식어로 사용함으로써 늙음을 강조하고 노년의 이질성과 타자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주의적 편견의 뿌리가 깊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노년의 타자화가 단순히 호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문화 전반에 걸친 노년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년은 ‘우리와는 다른 ‘그들’, ‘일반적이고 익숙한’ 존재가 아닌 ‘이상하고 낯선’ 존재로 비춰진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양식이나 문화형태는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 결과 젊은이들에게는 당연히 되는 사랑, 도전, 열정 이런 것들이 노인들에게 적용되면 희화화되거나 매우 낯선 모습으로 그려진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노배우들의 여행을 소재로 한 ‘꽃보다 할배’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할배들은 제목과는 달리 늘 젊은 짐꾼이 돌봐주어야 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그려졌다. 이미 올해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를 넘어 국민 8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사회가 되었지만(통계청, 2012),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낯선 ‘그들’로 머물러 있다.

이렇듯 노년의 주변성이 심화된 연령주의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개인의 정체성보다 우선하는 문화적 범주로 강요된다. 그 결과 개별적 주체의 정체성에 ‘나이’라는 요인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라는 문화적 범주가 노인 개인의 개별적 정체감을 덮어 버리게 된다(경진웅, 2011). 따라서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는 순간 우리 모두는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노인’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 함몰되어 소외되고 무기력하고 촌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 주제 발표

### 주제발표 1 노년의 이해와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한정란(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한국노년교육학회장)

### 주제발표 2 노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동향 및 이슈

추미경((사)문화다움 대표,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 노년의 재해석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노년과 노화에 대한 관점은 실제 노년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설정된 것이다. 노년의 본질은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인간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노화과정과 노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를 바로 잡고 노년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 1. 전 생애 발달의 관점

P.B. Baltes(1987)에 의하면 전 생애 발달(life-span development)의 관점은 인간의 발달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첫째, 인간의 발달은 평생에 걸쳐 진행된다. 발달은 성인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년을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된다(Baltes, 1987). 발달에 있어 생애 모든 단계의 영향력은 똑같이 중요하며, 어떤 시기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개인의 발달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 개개인의 발달이 달라진다. 따라서 노년기 역시 발달의 과정 안에 포함되며, 결국 ‘노화’는 발달의 반대말이 아니라 동의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발달은 ‘다차원(multi-dimension)’적이고 ‘다방향(multi-direction)’적이다(Baltes, 1987). 다차원성이란, 인간발달에 있어서 내생적인 요인과 외생적인 요인을 총망라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발달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모, 신체기능, 행동, 태도, 정서, 성격, 사고, 인지, 역할,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진행된다. 그 결과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면서 근력도 함께 약해지는가 하면 더 신중해지고 지혜도 늘어난다. 한편 다방향성의 발달은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플러스(+ )적인 성장과 마이너스(-)적인 감소를 동시에 포함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생애 어느 시기라도 양적인 성장만을 거듭하는 시기는 없다. 영유아기나 청소년기조차도 급격한 양적 성장 이면에 감소와 쇠퇴를 동반한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익히고 기본적인 생존기술들을 습득해 나가는 시기에도 그리고 2차 성징이 발현되고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에도 그 발달의 이면에는 상실과 감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걸음마를 익힘과 동시에 기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이 능숙해져 감에 따라 웅알이가 사라지며, 성인으로서의 신체적 특징을 갖춰갈수록 귀엽고 순수한 모습과 신체적 유연성도 사라진다.

이러한 원리는 노년을 포함해 일생을 통해 적용된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젊어서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외현적인 특성을 얻고 잘 보이지 않는 특성을 잃는 데 반해, 노년으로 갈수록 외현적인 특성을 상실하고 내면적인 특성을 획득한다는 점이다. 노년에 이르면서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강한 근력, 순발력, 기억력은 쇠퇴해가는 반면, 인생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통찰과 포용력, 혜안(慧眼)이 쌓여간다. 따라서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 본다면 노년기 역시 끊임없는 성장과 쇠퇴가 교차하는 발달의 과정인 것이다.

셋째, 인간의 ‘가소성(plasticity)’은 전 생애를 통하여 열려 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전 생애에 걸쳐 발휘되기에는 충분할 만큼 크다. 일생 중 더 이상 발달하고 성장하며 변화될 수 없는 시기는 없다. 즉, 노년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며,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71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9세에 학사 학위를 받아 Harvard 대학의 최고령 졸업생으로 기록된 Mary Fasano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G. Vaillant(2002) 역시 세 개의 중단연구를 종합한 그의 책 『Aging Well』에서 발달과 변화가 전 생애를 통해 일어난다고 결론 내렸다.

넷째, 인간의 발달에서 연령의 증가나 유전적 요인 못지않게 개인을 둘러싼 역사·사회적 맥락(historical and social context)이 중요하다. 발달에 있어서 가정이나 개인의 교육경험 같은 개인적인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못지않게 어떤 발달적 시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환경에 놓이게 되는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의 교육개혁조치에 의해 과외가 금지되었던 1980년대에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은 대부분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학교교육만으로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들에 비해 쉽게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고, 졸업정원제로 대학의 정원이 대폭 증원되면서 더 많은 대학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세대들은 국제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조기 영어교육과 조기유학 열풍 속에 성장하면서 국제적 감각을 길러나갔다. 이와 같이 개인이 어떤 발달단계에서 어떤 역사·사회적 맥락 안에 놓이게 되는가는 그 개인과 그가 속한 세대의 발달적 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금의 노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온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다섯째,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s)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노년은 그런 개인차가 가장 극대화된 시기다. 양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된 성인기 이후의 발달은 질적인 다양성, 즉 개별화가 확산된다. 따라서 노년은 어떤 연령집단보다도 큰 개인차를 지닌 다양성이 큰 집단이다. 노인은 타고난 유전적인 개인차뿐 아니라 살아온 인생의 시간만큼 각자 겪은 다양한 사건, 습관, 직업, 학습 등 개인의 독특한 인생 역사로 인하여 더 다양하고 큰 개인차를 지닌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발달을 단순히 발달단계만으로 모두 설명될 수는 없으며, 노년 역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째,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학문이 아닌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partnership)이 필요하다. 인간의 발달은 어느 한 측면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 걸쳐 진행된다. 발달은 신체적 영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역할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복잡한 인간의 발달과 변화를 어느 한 학문의 시각이나 방법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며, 노년 역시 그들의 신체적 쇠퇴나 노화에만 초점을 집중시키지 말고 통합적인 노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들 간의 상호 협력과 보완이 필요하다.

### 2.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 본 노화

이러한 전 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노화는 다음 세 가지 특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한정란, 2015).

첫째, 노화는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되는 보편적인 변화이며, 노년은 어떤 특수한 계층이나 집단만이 경험하게 되는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경험이 아닌 인간 발달상의 보편적인 단계다. 노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인간 발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노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물론 노화의 속도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는 개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화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노화는 어느 한 측면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지닌 거의 모든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변화다. 노화는 외모 뿐 아니라 신체의 각 기능, 정서, 성격, 인지, 사고, 태도, 사회적 역할, 인간관계, 행동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일어난다. 성형을 통해 주름을 제거한다고 해서 혹은 화장이나 옷차림으로 젊음을 위장한다고 해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으며, 말투나 행동, 사고,

역할까지 젊게 만들 수는 없다.

셋째, 노화는 시작하는 시점은 있지만 완성은 없는 진행형의 변화다. 노화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인지적 성숙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청년기 이후부터 시작되지만, 그 완성이나 끝은 정해져 있지 않다. 노화는 개인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르러 비로소 완결되며, 따라서 노년기는 전 생애에 걸친 인간발달의 긴 과정 위에 존재한다. 노년은 지나온 발달의 흔적들 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발달의 과업들을 남겨 놓고 있는 진행형의 시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년은 그 겉으로 보여 지는 모습 뒤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쳐 온 전 인생의 모습들이 누적된 결과다. 노년은 전 생애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발달의 과정 즉 모든 연령을 그 안에 담고 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에서 “사실, 내 안에는 모든 나이가 다 있네. 난 3살이기도 하고, 5살이기도 하고, 37살이기도 하고, 50살이기도 해. 그 세월들을 다 거쳐 왔으니까, 그때가 어떤지 알지,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어린애가 되는 것이 즐거워. 또 현명한 노인이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현명한 노인이 되는 것이 기쁘네. 어떤 나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가 다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한 모리 교수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 문화예술교육의 학습자로서 노년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마주치는 노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로서 노인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년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노년기 삶의 특성

학습자로서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년기 삶이 갖는, 다른 시기와 구분되는 삶의 특징들을 이해해야 한다.

#### 1) 삶의 통합성(Integrity)

먼저 학습자로서 노인의 삶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삶의 통합적 특성이다(한정란 외, 2008). 노년기 이전까지의 삶은 개인 및 가족생활, 경제적 소득 창출을 전제로 하는 직업생활, 무보수성을 전제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취미 여가활동 등 삶의 각 영역들 간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영역들 중 몇 가지만을 취사 선택하여 삶을 구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직업적 성취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면, 가정생활이나 취미생활은 없이 직업생활이 삶의 거의 전부를 차지할 수도 있다. 또 가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이라면, 직장생활을 접고 취미도 뒤로 한 채 가정의 안녕과 행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적절히 병행하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의 크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영역 간에 분리된 삶의 형태 속에서는 한 영역에서의 성공이 다른 영역의 실패를 모두 보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함으로써 직업에서의 성취감이나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직업에서의 경쟁과 성취감, 자녀양육의 책임감이나 가사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노년기 삶은 자원봉사 같은

월 20만원의 노인 일자리, 부부만 남아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가사, 일부러 시간을 쪼개지 않아도 되는 여가와 취미생활, 자긍심과 보람으로 직업적 역할을 대체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과 같이 생활의 영역들이 뚜렷한 구분 없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고 노년기의 이러한 통합적 특징은 학습자로서 노인들에게 학습활동과 여가활동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든다. 노년기 학습자들은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마치 직장에서 느꼈던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동료학습자들과 사귀고 어울리고 싶어 하며, 혼자 먹는 점심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노년기 학습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습 본래의 목적 즉, 취업이나 졸업, 자격 취득 등의 도구적인(instrumental) 목적보다는 학습을 통한 호기심의 충족이나 학습동료들과의 교류에서 오는 즐거움 등 학습활동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표현적(expressive) 목적으로 다가온다. 문화예술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여가활용과 지식의 습득, 사회참여, 건강개선, 심리적 만족 등 다양한 노년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한다.

### 2) 다양성(Diversity)

노년기 삶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한정란 외, 2008). 노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 변화지만, 노화의 진행 속도나 노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구체적인 결과들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인간은 출생 당시 최소한의 유전적인 개인차만이 발현된 상태지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이, 학습의 차이, 직업의 차이, 습관의 차이, 생활양식의 차이, 생활환경의 차이 등은 오랜 시간 후에 그 개인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존재로 만든다. 그런 점에서 노년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그런 개인차가 가장 극대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성을 지닌 노인 학습자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때 그들의 참여동기, 학습요구, 선행학습정도, 학습에 대한 태도, 학습성향 등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 강사가 되고 싶어서 그 교육에 참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년을 보다 풍요롭게 보내고 싶어서 교육에 참여하며, 또 어떤 이는 낮 시간 동안 머드리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교육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어떤 학습자는 어려서 고전무용을 배운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난생 처음일 수도 있다. 이러한 노년의 다양성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하나의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노인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은 이런 노년의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또 그러한 다양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2. 노년기 신체적 특성

또한 학습자로서 노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화를 통하여 그들이 겪는 신체적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 1) 감각의 노화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신체적 노화는 감각의 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노화와 더불어 인간이 갖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 즉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모두가 쇠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노화되는 감각은 시각이다. 학습에 있어 시각은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기 때문에 교육에서 시각의 노화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초점 조절이 힘들어지면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이른 바 '노안(老眼)'이 나타나고,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고 암순응에 어려움이 커지며, 색깔 구분이 어려워지고 눈부심 현상이 증가하고 시야도 좁아진다. 또한 각막 표면이 건조하고 두꺼워지고, 수정체가 점차 노랗게 변하는 황화(yellowing) 현상으로 인하여 마치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이 푸른 계열의 색깔이 탁하게 보이고 구분도 어려워진다. 그 뿐 아니라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져 이전의 시각 자극상이 남아 있는 잔상효과가 증가하고, 시각의 민감도나 유연성, 착시감지 능력 등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이 같은 시각 자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필요로 한다.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계점멸빈도(critical flicker frequency)의 감수성이 낮아져 단절된 불빛을 연속된 하나의 불빛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자극을 정확히 지각해내는 역동적 시각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각 다음으로 진행되는 노화는 청각의 노화다. 사실상 기억이나 인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각이 청각이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청각의 중요성은 시각보다 더 크다. 청력은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떨어지며, 노인성 난청은 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소리에 대한 예민성이나 언어 구분이 둔화되기 때문으로, 특히 오른쪽 귀보다는 왼쪽 귀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저음보다는 고음에 대해 난청이 심하다.

세 번째 미각은 혀에 분포한 맛을 감지하는 돌기, 즉 미뢰(味蕾)의 수가 감소하고 입과 입술의 탄력이 줄어들며 타액 분비가 감소함에 따라 맛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된다. 미각의 노화는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미각의 즐거움이 삶의 의욕이나 활력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미각의 쇠퇴 역시 학습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후각도 콧속 후각돌기의 감소와 후각 상피세포의 퇴화, 중추신경 경로의 노화 등으로 인하여 노화가 진행된다. 후각의 노화 역시 학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후각이 미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노인의 후각 장애가 혈관성 치매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후각의 노화 역시 학습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촉각에서는 접촉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고, 열 수용기의 둔화로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노화가 진행된다. 또 촉각이 둔해지면서 손과 눈의 협응능력도 함께 떨어져 동작의 세밀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문화예술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촉각의 노화를 고려하여 동작을 짧게 끊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강의실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며, 야외활동 계획 시에는 추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2) 수면패턴의 변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룻밤 동안 1단계의 얇은 잠에서부터 4단계의 깊은 잠까지의 비(非)렘수면(NREM: non-rapid eye movement)과 렘수면(REM: rapid eye movement)을 4회 내지 5회 정도 반복한다. 렘수면 기간 동안은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때 뇌신경 활동은 깨어있을 때의 상태와 매우 유사하지만 몸은 깊은 수면에 빠진 것처럼 완전히 이완된 상태여서, '역설적 수면(paradoxical sleep)'이라고도 부른다. 나이가 들수록 렘수면과 깊은 수면에 해당하는 3, 4 단계의 수면이 줄어들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로도가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른 전체 수면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초저녁잠은 늘어나는 반면 아침잠은

줄어 들고 수면이 자주 끊어지는 등 수면패턴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이와 같은 수면 패턴의 변화는 학습의 집중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수업시간 배분이나 교육내용 구성에 참고하여야 한다.

## 3) 기능의 노화

호흡기능에서 20세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폐의 용적이 줄어든다. 전체 폐활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제 호흡에 쓰이는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숨을 마음껏 내쉬었을 때 호흡 후 폐에 잔류하는 양이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심장 혈액 박출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우 빠르고 격렬한 움직임은 가급적 피하고, 호흡 기능의 저하로 호흡기 질환의 감염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환경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순환기능에서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심장박동도 점차 느리고 불규칙해지며, 동맥경화나 뇌출혈의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흥분에 혈관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출혈 발생 확률도 높아지므로 흥분을 자제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설기능에서는 요관이나 방광의 약화로 소변이 원활하게 배설되지 않는 소변정체(停滯)나 요석, 방광염 등의 위험이 커진다. 또 빈뇨나 요실금(尿失禁) 등 배뇨 장애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업 중 화장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방광에 자극이 가는 심한 움직임이 있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내장기관 중 간은 노화에 따라 크기가 줄어들어서 약물 분해 및 해독 능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피로가 잘 안 풀리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너무 무리하여 피로가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 노년기 심리적 특성

노인 학습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

### 1) 노년의 나잇값

인간은 전 생애에 걸친 발달과정 속에서 각 시기나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심리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발달과업”이라고 부르며, 우리말로는 “나잇값”이라고 바꿔도 무방할 것이다(한정란, 2008). 전 생애발달을 이러한 도전과 성취과업의 측면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는 E. Erikson(1963)이다. 그가 제안한 여덟 단계 중 노년과 관련을 갖는 발달과업 즉 나잇값은 마지막 두 단계인 중년기와 노년기의 과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Erikson(1963)은 중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생성감(generativity)’을 제안했다. 생성감이란 다음 세대를 위한 돌봄의 책임을 질 준비를 하는 것(Erikson, 1982)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 교육, 선도하고 그들에게 진취성을 북돋우는 역할을 담당할 때 발달된다(McAdams, & de St. Aubin, 1992). 일차적으로 생성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지만, 자녀양육이 끝나는 시기인 중년 이후에는 그 범위가 확장되어 지역사회와 후 세대에 공헌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의미하게 된다(Taylor, 2006). 생성감은 후 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제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사회적 성취가 완성되는 생애 후반부에 이르면,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더 넓은 사회와 후세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삶을 더욱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처음 Erikson(1963)이 중년의 과제로 제안했던 생성감이 중년 이후 노년의 과제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생성감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에 국한되는 덕목이 아니라 혈연을 넘어선 후세대에 대한 돌봄과 지도임을 감안한다면, 수명은 점차 길어지는 반면 형식적 교육연한은 물론 취업과 결혼, 출산 시기까지 점차 늦춰짐으로써 발달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생성감은 중년보다는 노년기와 더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사회나 후세를 지원하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년기까지의 성공적인 적응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탐색과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실존적 영성의 깨달음을 통해서 노년으로까지 연장된 생성감의 실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아통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Erikson도 후기 저작에서는 ‘노년의 생성감(grand-generativity)’이란 개념을 새롭게 주장한 바 있다(Erikson et al., 1986). 노년의 생성감이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이용하여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공헌하는 것으로, 중년의 생성감이 직접적인 책임감과 동시에 불안감(경험과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을 지니는 반면, 노년의 생성감은 더 부드럽고 간접적이며 덜 즉흥적이고 자아통합을 통해 얻은 삶에 대한 깊은 회고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년기에 이르면, 외적인 적응에 몰두하기보다 성숙과 지혜를 갖기 위한 내적인 투쟁을 시작하며, 이 투쟁의 단계는 ‘자아통합 대 절망감(ego-integrity vs. despair)’으로 나타난다. Erikson(1963)이 말한 노년기의 주된 발달과업인 자아통합(ego-integrity)의 성취는 생성감의 나잇값을 실현해야만 가능하다. 욕심에 매어 젊을 날에 대한 후회와 질투에 발목을 잡힌다면, 살아온 삶의 의미들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성공적인 자아의 모습으로 통합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에게 주어진 과정은 지난 인생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하나의 정체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Grotjahn, 1989).

자아통합은 죽음, 즉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수용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켜보고 겸허하지만 확고하게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확신하는 데서 자아통합감이 생긴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난날의 갈등과 죄책감을 해결하고 걸어진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자신이 지나간 인생 경험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아가 노년에 대해 평온하게 느끼고 수용하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삶의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존엄성과 가치를 믿고 확신하게 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통합의 결여나 상실은 죽음에 대한 감추어진 두려움, 되돌릴 수 없는 실패, 희망했던 것에 대한 끊임없는 미련으로 나타나며, 자아통합은 자신의 삶을 ‘그랬어야만 했던 것’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대치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 2) 노년기 성격 특성

노년기의 성격 특성은 성격 특질이나 성별, 환경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노화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한정란, 2015).

첫째, 사람은 장년기에 이르면서 시간을 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된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짧아지면서, 초점을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맞추게 되고 그 마지막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시간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몇 년 살았는가에서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는가로

미래시간전망(future time perspective)이 변화하게 된다(Coudin, & Lima, 2011). 이는 인지적 수고를 최소화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노년기에 이르면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이다. 미래시간전망의 변화는 제한된 남은 시간 동안에 긍정적인 정서를 맛보고자 하는 동기로 이어짐으로써 가능하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람들만 만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또 기억 없는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미래의 결과나 성취보다는 현재, 바로 지금 얻을 수 있는 성취에 더 큰 중요성을 두게 한다. 따라서 수업 중 보인 수행에 대해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을 하는 등 가능하면 즉각적인 환류를 제공하고, 교육의 효과에서도 미래의 효과보다는 바로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신체적 상태나 반응에 대해 민감해진다. 신체적 노화가 진전되면서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건강에 조심스럽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 증상에 과잉 반응하여 건강염려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업 중 신체적인 이상이나 문제를 호소할 경우에 간과하지 말고 세심하게 관심을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심성이 늘어난다. 따라서 젊었을 때는 쉽게 속단하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러한 과감성이 줄어들고 신중성이 늘어난다. 또한 조심성이 늘어남으로써 어떤 문제에 쉽게 답을 내지 못하여 자연히 반응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몰라서 틀리는 실수오답(commission error)보다 답하지 않아서 틀리는 누락오답(omission error)이 많아진다. 조심성의 증가에 대하여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연장자로서 체면과 지위, 연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정확성을 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감각능력과 인지능력 등 신체적, 심리적 메커니즘의 쇠퇴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가설은 노화에 따른 자신감의 감퇴로 결정에 필요한 확실성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노인들의 조심성 증가는 교육장면에서 학습자들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아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답하기를 꺼려하거나 표현이나 반응에 있어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수자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편안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노인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관심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내향성(interiority)이 증가한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원심성(遠心性)에서 구심성(求心性)으로 변해 가면서,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사물의 판단과 활동 방향을 외부보다는 내부로 돌리는 경향, 즉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보다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진다. 간혹 이러한 경향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부족이나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집단별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집단 활동 시 준수해야 할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양성화 경향이 나타난다. 인간은 누구나 남성성(masculine)과 여성성(feminine)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두 측면 중 어떤 특성이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는가는 개인의 성별, 부모의 양육태도, 교육환경, 개인의 경험 그리고 인생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중년기 이후 자녀양육이 종결되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함으로써 더 이상 강요된 남성성과 여성성이 아닌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갱년기를 거치면서 각 성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 것도 양성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 대상 교육에서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에만 얽매이지 말고,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여성과 더 수동적이고 감성적인 남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섯째,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노인은 청년에 비해 생소한 사물에 대하여 새로운 감정을 투입하려는 경향이 감소하고, 쉽게 새로운 것에 정을 붙이지 못하는 등 감정적 탄력성이 감소한다. 이는 오랜 친숙한 것들이 유한한 인생에 일종의 계속감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만족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중에 교수자 역시 노인 학습자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들에 대해 그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또 때로는 편안한 수업 분위기 조성에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할 수도 있다.

### 3) 노년기 인지 특성

인지적 노화는 특히 학습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인지능력이 쇠퇴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그 능력의 전부가 수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에서 나타내는 능력은 최선일 수는 있어서 반드시 능력의 전부는 아니다. 다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정수준(optimum levels)과 최대수준(maximum levels) 간의 차이는 감소한다(Bromley, 1985). 따라서 노년기 학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는 것이다. 학습과 관련이 깊은 인지적 특성의 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의 노화는 노년기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기억능력은 청년기에 정점에 달하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감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억의 노화가 갖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이해하고 교육에 적용한다면 노년기 학습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억에서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은 최근 기억(recent memory)의 상실이 과거 기억(remote memory)의 상실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이는 순행간섭과 관련이 있는데,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억들이 많아서, 과거 기억이 새로운 정보의 기억이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학습내용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거나 실제 예시를 통해 그들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노년기 기억에서는 기계적인 암기보다 논리적인 기억능력이 더 크게 감퇴되는 경향이 있다. 기계적 기억에 비하여 논리적 기억은 복잡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손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익숙한 노랫가락에 맞춰 기억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칙에 의한 반복적인 학습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 시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 대한 기억 즉 본 것에 대한 기억보다 청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 대한 기억인 들은 것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된다. 이는 노화로 인해 시각의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청각이 기억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감각체계이므로 노인의 경우 청각 기억의 손상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자료를 보여주고 혼자 읽어보도록 하는 것보다는 함께 크게 소리를 내며 읽는 것이 기억과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

네 번째, 무의식적 혹은 습관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비진술기억(non-declarative memory)보다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의식적으로 재조합해서 학습하는 기억인 진술기억(declarative memory)에서 노화로 인한 감퇴가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진술기억 중에서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체계인 의미기억(semantic memory)보다 시간과 장소,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일화기억(episodic memory)에서 감퇴가 더 크게 일어난다.

다섯 번째, 미래에 수행해야 할 행동을 계획, 조직하고 자기검색(self-monitoring)하는 미래계획기억 혹은 조망기억(prospective memory)이 매우 취약해진다. 이는 정보의 계획, 조직, 검색 기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감퇴로 자기주도적 인출과 자기검색 기능이 감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애순, 2002). 따라서 수업에서 필요한 과제나 계획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공지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기억력 감퇴는 자연스런 노화 결과이기는 하지만 전혀 회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꾸준한 학습과 독서 등 지적 활동을 유지하며,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 즉 메모하고 녹음하는 습관이나 반복 암기 등을 기용한다면 상당 부분 기억력을 유지하거나 망각을 늦출 수 있다.

둘째, 기억력 외에도 노년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는 정서유발 수준(arousal level)이다. 학습능률을 높이려면 적절한 정서유발이 필요한데, 이와 같이 학습에서 적절한 긴장과 흥분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긴장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로 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습상황에서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더 높은 정서유발 수준을 보이며, 이러한 지나친 정서유발 즉 흥분, 긴장 불안 등으로 인해 학습에 방해로 받게 된다. 따라서 경쟁과 불안을 유발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지지적이고 노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요인은 속도와 학습 및 반응에 허용되는 시간의 양이다.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학습상황에서 노인들은 학습능률이 더 떨어진다. 또한 전두엽의 기능 저하로 과제를 학습하거나 기억하는 데 필요한 학습시간(study time)이 길어질 뿐 아니라 조심성의 증가와 기억의 쇠퇴로 인하여 학습한 내용을 반응으로 이끌어내는 데 소요되는 반응시간(response time)도 길어진다(윤진, 1985; Crandall, 1980; Greenberg, & Powers, 1987). 따라서 학습과 반응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4) 노년기 정서적 특성

노인들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자신의 정서 상태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정서 표현의 강도도 더 낮다(유경 외, 2014).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들을 경험하여 왔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감정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정서 복잡성의 증가로 인하여 점점 더 특정 정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신의 심리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차 어떤 사건에 대한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노인들보다도 남성 노인들의 경우 정서 표현에 더 인색하고 서툰 경향이 있다(유경 외, 2014). 이는 남성들의 경우 문화적으로 어려서부터 정서 표현을 제한 당해왔고 성취지향적인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더욱 사적인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제한되었던 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표현에 익숙하고 관계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정서 표현에 익숙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년기 정서적 특성은 문화예술 활동이나 교육에 있어 노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노인 학습자들보다 남성 노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노인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표현을 요구하기 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연습과 교육을 통하여 점차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할 것이다.

##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원리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창의적 활동을 통해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노인들을 수동적인 관객이나 청중이 아닌 문화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하여 감정적 정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분노, 고통, 소외의 극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존중, 믿음, 선택, 책임감 등으로 전환시켜주고, 광범위한 노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한다(기영화 외, 2010).

그러나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이와 같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노인 학습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구성되고 또 노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수방법을 통해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한정란(2005)은 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을 위한 교육은 어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교육과는 다른 교육의 원리들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의 원리로, 노인을 위한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년기의 학습은 학령기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참여의 의무나 강제성이 적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습자 개인의 선택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교육에서는 형식교육처럼 교수자에 의해 지식이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교수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관심과 욕구에 따라 학습이 구성되어 가야 한다. 즉, 노인을 위한 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자기학습의 원리를 기초로 하며,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유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 학습자들의 흥미나 욕구에 맞는 주제와 내용 구성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유의미 학습의 원리로, 노인 학습자는 학습과제의 성격에 매우 민감하다. 학습과제가 자신의 관심에 부합되고 현재 자신의 삶에 친숙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록 학습의 효과가 높아진다. 어린 학습자들에게는 학습과제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보다 학문적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가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나 노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흥미롭고 유용한가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노인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고 관련 있는 주제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흥미를 이끌어내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융통성의 원리로, 노인을 위한 교육에서 융통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시간조절의 융통성으로서 자기보조(self-pacing)의 원리를 의미한다. 노인 학습자들은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학습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융통성으로, 정해진 진도나 형식 혹은 내용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상황이나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교수방법과 형식 등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업시간을 여유있게 구성하여 개인에 따라 충분한 연습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순서도 융통성 있게 조정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 중심의 원리로, 노인을 위한 교육은 자발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며, 교육 참여의 주도권이 교수자나 교육 제공자보다는 학습자나 교육의 수요자에게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노년교육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것의 제공 역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수업의 방향을 학습자들의 요구에만 맞춰 진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요구와 들어맞지는 않지만

교육의 주제 상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상호 존중의 원리로, 노인을 위한 교육의 공간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정적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노인들은 일제 강점기의 권위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교육 자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노인 학습자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 참여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지지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집단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지적이거나 평가적인 수업방식보다는 배려와 존중, 격려, 칭찬을 주로 하는 수업방식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노인 중심의 원리로, 노인들은 그 어떤 연령기보다도 다양하고 개인차가 큰 집단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연령도 6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학습자가 모여 있을 때 노인을 위한 교육의 초점은 학습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입장에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모든 교실의 분위기나 환경, 과제의 준비에서 그런 취약성을 지닌 노인 학습자에게 최대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노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한정란·윤소영(2012)이 2011년 노인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수혜기관 113개 기관 및 노인 학습자 4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노인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다양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조사결과, 기관과 노인 학습자 모두 현재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현장과 노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한 분야 내에서도 영역을 보다 세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문화예술교육에서 이론, 실기, 감상 교육의 비중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기관과 노인 모두 문화예술교육에서 이론, 실기, 감상 교육 중 실기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무용 분야일수록 실기의 비중을 높게 요구하였다. 따라서 노인 문화예술교육에서 실기교육을 강화하되, 학습자의 특성이나 참여분야에 따라 이론과 실기, 감상 교육 간에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조사 결과, 노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울지역은 음악과 사진에 대한 요구가, 수도권 및 광역시는 미술과 공예에 대한 요구가, 중소도시는 음악과 연극, 미술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농어촌은 무용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원 분야를 다양화할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부 교육내용 및 난이도에 대한 조정과 학습집단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조사 결과, 노인들은 노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시간을 내기 어려움과 같은 내적인 요인들을 들었다. 또한 노인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전의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선수학습 정도 즉, 문화예술교육 경험 유무와 개인적 특성, 그리고 기본적인 노인 문화예술

수준에 따라 학습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및 강사 지원 뿐 아니라, 재료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예산과 전문강사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예산과 강사에 대한 지원 외에도 시설이나 장비, 도구 등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인 문화예술 전문강사에 대한 통합적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각 분야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되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특히 유사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고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연계성을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이라는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교육이 진행되기는 하나,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경우는 교육적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 좀 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예술을 노인교육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사전 계획 단계로부터 사업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보다 효과적인 노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사 파견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 강사 교육 계획, 프로그램 자문, 사업 평가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수행기관들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현장에 더 적합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덟째,** 노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동아리 형태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한정란 윤소영, 2015). 노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만 한정된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강사에 의해 주도되고 노인들은 수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하는 수업의 형식을 넘어서서 어느 수준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는 자율적인 동아리 형태로 조직하여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새롭게 학습집단을 구성하고 해체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학습집단이 유지 발전되면서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장기적인 지원계획 하에 초급반-중급반-동아리의 형식으로 단계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 궁극적으로 동아리 단계에서는 강사 없이 학습자들끼리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각 기관의 동아리들이 연합회를 구성하여 기관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더 나아가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을 통한 노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노인 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방적으로 노인 자원봉사로 연계하기보다는 노인들 스스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자원봉사 소양교육이 요구된다.

**열째,** 노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가 요구된다. 예산 지출, 사업 진행, 모집률, 출석률, 교육 만족도 등 산출(output)에 중점을 둔 평가를 지양하고, 교육의 성과(outcome)에 중심을 둔 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노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및 사회참여 증대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입증함으로써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확산시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확대하여 세대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의 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은 다른 영역에 비해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이므로, 앞으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세대들과 노인이 함께 하는 세대통합 및 세대공감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영화, 김남숙, 김선주, 성경은(2010). **노인 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애순(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유경, 유경호, 강연옥, 이주일, 김지현(2014). **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윤진(1985).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정진웅(2011). 노인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 31(3), 751~765.
- 한정란, 윤소영(2011). **노인 문화예술교육 요구 조사 및 측정 지표 개발**. 한국노인종합복지협회.
- 한정란, 윤소영(2015). 정책 수요자 요구에 근거한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제안. **노년교육연구**, 1(1), 69-89.
- 한정란(2005).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정란(2008). 노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노년 교육의 관점. **한국교육인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38.
- 한정란(2015). **노인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정란, 박성희, 원영희, 최일선(2008). **노인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보고서.
- Albom, M. (1997). Tuesday with Morrie. 공경희 역(1998).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서울: 세종서적.
- Baltes, P. (1987). Theoretical propositions of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On the dynamics between growth and decline. *Developmental Psychology*, 23(5), 611-626.
- Bromley, D.B. (1966). The psychology of human aging. 김경희 역(1985) **노인심리학**. 서울: 성원사.
- Coudin, G., & Lima, M.L. (2011). Being well as time goes by: Future time perspective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Therapy*, 11(2), pp. 219-232.
- Crandall, R.C.(1980). *Gerontology : A Behavioral Science Approach*. Massachusetts :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 Y: Norton.
- Erikson, E. H(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 Y: Norton.
- Erikson, E.H., Erikson, J.M., & Kivnick, H.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the experience of old age in our time*. New York: Norton.
- Greenberg, C. & Power, S.M.(1987). Memory Improvement Among Adult Learners. *Educational Gerontology*, 13, 263-280.
- Grotjahn, M.L.(1989). Group Analysis in Old Age. *Group Analysis*, 22, 109-111.
- McAdams, D., & de St. Aubin (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pp. 1003-1015.
- Taylor, A. (2006).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mobilizing volunteers in support of youth In E. G. Clary, & J. E. Rhodes (Eds), *Mobilizing adult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Springer, pp. 83-100.
- Vaillant, G.E.(2002). *Aging Well*. NY: Brown and Company.

# 노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동향 및 이슈

추미경(사)문화다움 대표,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에서의 노인 문화예술교육 시작점

현대사회에서 고령화-고령-초고령사회<sup>1)</sup>로의 전개는 인류사회에서 완전히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국면이면서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다만, 국가별로 그 전개속도나 과정이 다르고 또 노인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역사,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노인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국가나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근현대화 과정이 내재적 힘에 의해서보다는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급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차분히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미래를 맞이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안타깝지만 최근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고령화사회로의 변화<sup>2)</sup>도 차분히 준비할 겨를 없이 급박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사회 제반 영역에서 고령화-고령-초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도 고르게 확산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추진도 일관되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속도의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혁신과 변화에 민첩하지 못한 노인 세대는 낡고 무능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고, 쓸쓸하게 물러나 갈 곳이 없는 나약하고 궁색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는 최근까지 미처 노년의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할 겨를 없이 개발과 성장만을 향해 달려왔던 한국 고령화시대의 첫 번째 노년 세대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노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이와 같은 고령화사회 속 노인 존재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즉,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의 일부로 접근되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생애적 관점, 세대적 관점 등의 총체적 인식에 기반을 둔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 하겠다.

때문에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실재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노인 문화예술교육 출발점과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미래적 관점에서 노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노인 문화예술교육 추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및 현장에서의 실질적 과제를 가능해볼 필요가 있다.

1)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사회는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로 구분되는데, 고령화 사회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이상~14%미만, 고령사회는 14%이상~21%미만, 초 고령사회는 20%이상으로 정의된다. (정찬애, 『노인의 문화예술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2013,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2)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인구는 50,424천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2.7%이다.  
3) 조현성 외,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참조 재구성하여 인용.

## 국내 노인 문화예술교육 주요 현황

국내에서 독립적 정책으로서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것은 2006년이다. 이전까지는 노인에 대한 문화정책이 별도로 있지 않았고,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에 대한 건강 및 경제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복지 차원에서 노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한국의 노인정책은 국민연금(1988), 노령수당(1991) 등의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약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시행되는 정도로 열악한 편인 가운데, 노인을 위한 별도의 문화정책이나 문화프로그램은 부재하였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일환인 건강체조, 노래교실, 사군자교실, 탁구 등 전통문화와 체육 등 다소 제한된 영역에서의 단순 강습형 프로그램이 노인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전부라 할 정도로 다른 기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도 경로당이 주요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실제 노인 문화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했다.<sup>3)</sup>

이렇듯, 노인에 대한 문화관련 복지나 교육 프로그램이 사회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2006년에 처음으로 노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 <국내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주요 현황>

시작연도	지원사업명	지원기관	사업항목(사업내용)	추진성과 비교
2005년~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부 지역전통문화과)	- 어르신문화학교 - 찾아가는어르신문화학교(어르신강사파견 등) - 문화나눔봉사단 - 문화동아리활성화 - 생활문화전승 - 세대공감한마당 - 우리마을문화로가꾸기 - 어르신인문학소풍 - 농어촌신바람문화사업 - 권역별어르신문화축제	- 2005년 10개 문화원, 10개 프로그램, 2억 4천만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수혜자; 364명) - 2014년 295개 문화원, 415개 프로그램, 37억 58백만원 규모의 사업진행 (수혜자; 13,366명/433개 프로그램 진행)
2006년~	사회 문화예술교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부 문화예술교육과)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 5개 장르 예술강사 파견) - 노인분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시범사업 (2014~/3개지역센터연계) - 청춘제 운영(2014~)	<2014년 지원사업 현황> - 총 190개 노인복지관 대상으로 145명 예술강사 파견(수혜자; 5,353명)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부 문화예술교육과 +지자체)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노인대상 문화예술교육 실행단체 지원)	<2014년 지원사업 현황> - 총 지원건수 328건 중에서 노인 34건 지원 - 총 예산 5,741백만원 중에서 노인 380백만원 - 총 수혜인원 8,690명 중에서 노인 484명
2008년~	어르신 특화 시민문화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서울시)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행단체 지원)	<2008~2014 지원현황> - 7년간 총 38억원 규모 지원 - 7년간 총 160개 프로그램 지원 - 7년간 총 수혜자수; 3,800명
2015년~	인생나눔교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부 인문정신문화과)	- 인생나눔 멘토 양성 및 파견 운영사업(군부대, 자유학기제학교,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 2015년 총 4억 지원예산 규모로 파일럿 방식의 사업추진 중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에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2005년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왔다.

또한 지자체의 독자적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서울시)이 처음으로 2008년부터 노인 특화 시민문화예술교육인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문화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 소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노년 주도적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생나눔교실’ 사업이 처음 시도되고 있다.

## 1.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sup>4)</sup> - 어르신문화학교 외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2005년 2억 4천만원 예산규모에 10개 문화원, 10개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예산과 사업주체가 꾸준히 늘어나서 2014년에는 37억 5천만원 예산에 295개 문화원, 415개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복합적 성격의 노인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다. 본 사업은 정책소관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이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원주체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정책 사업이자 지역문화역량강화 사업이어서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한국의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전국적인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 사업은 ‘고령화시대 어르신 세대의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을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센터로 육성하고자 표방하고 있으며, 어르신 맞춤형 예술교육에서 출발해 인문학, 마을기반 프로그램 등으로의 확대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소통과 공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문화원에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향토문화 중심의 강좌형 문화 프로그램이 가진 전형적 틀로 인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의 추진에서 문화예술교육적 관점과 방법론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기도 했지만 지난 10년간의 꾸준한 추진과정 속에서 노인에 특화된 예술교육, 더 나아가 노인주도적 문화교육 성과와 과제를 경험적으로 의미 있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노인 문화프로그램 또는 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 측면이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동아리화, 신규 동아리 창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 노인문화활동가 또는 강사 전환을 통해 수익창출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최근 노인문화콘텐츠 사업화에 대한 모색 등이 시작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성 파악이 가능한 196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되거나 새롭게 파생되어 진행되는 동아리/모임이 있는 문화원은 전체의 56.1%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봉사’ 동아리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터디’(30.9%), ‘공연’(10.3%), ‘친목’(8.2%) 순이었다. 어르신 수익이 있는 사업은 5.8%로 전체 415개 사업 중 24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총 수익은 35,281,000원인 가운데, ‘문화나눔봉사단’(15,225,000원), ‘어르신문화학교’(8,840,000원), ‘농어촌신바람놀이문화’(5,396,000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건수가 있는 사업은 전체의 9.6%(415개 사업 중 40개 사업)로, 총 586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가운데, 사업 유형별로는 ‘어르신문화학교’(189개), ‘문화나눔봉사단’(174개), ‘생활문화전승’(79개), ‘세대공감한마당’(73개), ‘어르신문화동아리’(48개) 등의 순이었다.

또한 10년간의 운영성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과제는 노인 문화예술교육에서 향후 다루어야 할 이슈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접근에서 시혜적 교육방법을 넘어 참여와 주체화에 대한 측면이 주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 더 나아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문화활동가 및 문화매개자로의 전환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요구와 가능성이 도출되는 점, 어르신 브랜드샵 구축 관련 문화콘텐츠 생산자로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과제가 제안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원방식에서도 기존 프로그램의 관성화와 피로도를 해소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획공모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프로그램 방법에서도 장르적 구분보다는 융복합적 접근 필요성을, 대상의 설정에서도 청년 연계, 직장인 연계, (예비)은퇴자(생애기술을 가진),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등 다른 세대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2. 사회문화예술교육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노인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5년 설립되면서 2006년부터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복권기금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 이후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서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의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 1)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아르떼 주관 예술강사 파견사업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노인복지관 내 노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체험 및 창작,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7년 이후 현재까지 9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백서에 의하면 2014년에는 190개 복지기관 대상 교보재 및 현장학습, 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분야별 예술강사 교육활동 평가 및 컨설팅 149회를 추진했으며, 총 5,353명의 노인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노인 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3개 광역센터(광주, 충남, 경북)와 협력으로 운영하였고, 19개 복지기관 346명 노인이 주체로 참여하고 654명이 관람한 ‘청춘제’를 개최하였다. 청춘제는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작품 발표회부터 어르신들이 느낀 삶의 변화에 대한 문화적 경험까지 공유하는 축제로 기획되었다.

4) 신동호 외, 『2014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평가 및 만족도조사연구』, 2014, 한국문화원연합회, 관련내용 전반적으로 참조하여 인용 및 작성.

## 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 단체지원사업

2005년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본 사업은 2007년 복권기금을 통해 노인, 장애인,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부터 예산이 국고로 전환되었다. 2010년에는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주관 하에 대상이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시민으로 확대되었고, 사업의 공모분야가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로 구분 추진되었다.<sup>5)</sup> 또한 2011년에는 지원사업 주관이 각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이관되었고, 2012년에는 사업명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일반시민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대상이 확장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노인복지관 예술강사 파견사업과의 중복수혜를 막고 차별화 하며, 새로운 대상을 개발하고자 노인복지관 및 그에 속한 노인대상은 수혜기관과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4년 지역특성화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을 보면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 총 지원건수 328건 중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34건, 총 예산 5,741백만원 중 노인이 380백만원, 총 수혜인원 8,690명 중 노인이 484명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 광역센터로 이관되면서 지역마다 노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다른 가운데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반이 대체로 허약하다고 볼 수 있다.

## 3. 어르신 특화 시민문화예술교육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유일한 사례이다. 2008년 서울시 시민문화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어르신 특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음악 시각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통합적·심미적 참여 기회를 통해 노년기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지역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발굴 지원하고자 하며, 수준별 교육과정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 문화예술교육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문화예술교육이자 노인에 특화된 이 사업은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보다는<sup>6)</sup> 시민으로서 노인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다고 하겠다. 때문에 사업대상에서도 만 60세 이상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어르신 및 베이비부머세대(50~59세)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실버세대를 앞두고 여가문화생활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혜층의 폭을 넓히고자 했고, 자체기획 프로그램에 동 사업 비참여 어르신을 모시면서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왔다.

이 사업의 지난 7년(2008년~2014년) 기간 지원현황을 보면 총 38억원 예산에 16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 수혜자수가 총 3800명 규모이다. 이중 2014년도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사업 수혜기관으로 서울시 16개 자치구 24개 문화기반시설 및 관련 복지시설(노인 관련 복지시설 16곳, 문화예술기관 2곳, 도서관 2곳, 주민자치센터 3곳, 구민회관 1곳)이 참여했고, 교육 장르로는 예술체험 중심의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연극(뮤지컬) 10개, 음악·미술 5개, 무용(움직임) 3개, 전통예술 2개, 영상·사진 3개, 글쓰기 1개로 총 24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단순 예술기량 중심 교육이 아닌 경험과 소통, 가치를 중시하는 과정 중심 체험형 통합문화예술교육으로 진행되었고, 강사는

최소 2~3명 단위의 team-teaching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참여인력 운영교육대상 특성에 맞는 집체교육형, 활동형(공연 등), 사회공헌형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이 권장되었다. 한편, 성과의 지속성을 위해 2013년 이후 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보조강사 제도를 시범운영하여 노인의 문화예술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다년간 교육 참여자의 동아리화 등 심화된 교육 수요를 해결하고 연속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기획공모 유형을 도입하여 자치구 내에 문화예술교육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모색하고 있다.<sup>7)</sup>

## 4. 인생나눔교실 - 노년대상 인생나눔 멘토 양성 및 파견운영 사업

이 사업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부 인문정신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인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극복한 은퇴세대가 새내기 세대와 경험과 인생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세대 간 역할 인정과 인문학적 소통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기존의 노인이 대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운영방식과 달리 노인이 멘토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 사업의 접근 방법은 노인이 아니라 은퇴세대라는 세대적 관점에서 대상을 발굴하고 그들의 사회적 경험과 인생의 지혜, 재능을 다른 세대와 나눌 수 있도록 멘토로 양성하고 군부대, 자유학기제 학교,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등에 실제 멘토 파견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노인교육뿐만 아니라 노인의 멘토 활동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노인 프로그램과는 접근이 전혀 다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은 시범사업인데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관련 인식수준이 천차만별인 현실여건 속에서 은퇴자 대상 발굴과 멘토 양성, 멘토 파견운영 등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라 예상된다.

5) 일반공모는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존의 사업이고, 기획공모는 지역거점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되었다가 2012년 폐지됨. 2013년 이후 각 기관별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대다수 광역센터가 기획공모 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음.

6)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경로우대 대상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노인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나 65세 연령 기준이 2015년 현실과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 대상 설정은 대체로 이상의 근거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7) 『예술과 삶, 어르신 문화예술교육(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참조하여 재구성

## 국내 노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이슈들

이상의 현황에서 국내 노인 문화예술교육에서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이슈가 도출된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대상이자 주체로서 노인에 대한 시각 및 접근방법에 대한 이슈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2005~6년에 시작되어 현재 10년이 겨우 지나고 있는 단계인데다 애초에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이 아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아우르는 총체적 관점의 노인 세대로 접근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에 대한 수혜적 관점에서 대상화한 경향이 크다. 때문에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세대적, 생애적 관심으로부터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구성하기보다는 단순 예술기량 교육내용에 머무르거나, 좀 더 나아가다 하더라도 체험형 통합문화예술교육 등 교육방법론 적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해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나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인생나눔교실에서의 접근방법이 사회적 약자로 접근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보다 노년세대에 대한 확장된 인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노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규모가 매우 열악한 기반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노인대상 문화예술교육이 노인들에게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져왔던 이유는 노인에 대한 논의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청장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기영화, 김남숙, 김선주, 성정은, 2007). 또한 노인들의 자녀중심적인 사고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재욱, 2012)<sup>8)</sup>. 그리고 노인들은 문화예술을 향유해야하는 분명한 계층이지만 문화예술교육의 향유라는 관점이 아닌 치료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 박현철, 2009; 송영주, 이근매, 김기보, 2012 등). 국가적으로도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고재욱, 201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규모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며, 서울문화재단(서울시)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도 서울시, 전국의 노인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하며,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영역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규모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노인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상당수 여가활용을 위한 형태로 단순하고 다양성이 부족하여 자기를 표현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취감의 기회를 갖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문제가 있다(김문수, 2000; 정여주, 2003). 즉 단순히 여가시간을 보내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문화를 형성하고 삶을 즐기며 사회적 참여를 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노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노인복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노인복지로, 생계 중심의 살기 위한 노인복지에서 문화 중심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인복지로의 전환이 내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여가의 차원이 아닌,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학습의 차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인문제는 정책적 차원의 대처에서 진일보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문화로 형성되어야 한다(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가의 수준을 넘어서 노년 세대의 삶으로서 접근하는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노인들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년의 주체성과 사회성을 시대에 맞게 제고할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sup>9)</sup>

## 해외 관련사례의 참조

해외에서의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기존 노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에서 유사하게 소개된 바가 있는데, 주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기반 노인 문화예술교육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발제에서는 고령화사회 속도가 빨랐던 유럽사회 중 영국과 유럽사회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미국에서의 최근 노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술지원기관 및 프로젝트의 동향을 일부 살펴본다.

먼저, 영국에서의 노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동향 중 두 가지 점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박물관 미술관 등의 예술공간에서의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일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한 성인참여예술(adult participatory arts) 프로젝트가 있다. 영국 예술위원회는 2008년~2011년 사이 복권기금 16억 파운드 규모로 런던 기반으로 활동하는 13개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예술에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해본 적이 없는 성년과 함께 예술 창작 작업을 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성과를 가능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예술지원에 대한 예술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논쟁이 뜨겁기도 했는데 그 본질에는 예술로부터 소외 또는 배제된 성인(노년 포함)과 함께 예술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예술생산자로 성인을 참여하게 한 예술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이슈가 있다.

이 사례는 영국사회가 주로 노인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에 대한 예술교육을 관객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왔던 오랜 전통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단계로 지향기치가 이전되고, 그 이후 완전히 다른 접근방법인 예술생산자로서의 성년의 참여예술이라는 접근을 시도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실험과 논쟁으로부터 한국사회에도 성년, 또는 노년의 삶과 예술이 만나는 방법론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전형적 틀을 벗어난 새로운 관점과 접근에 대한 적극적 시도가 필요하며, 또 사회적 학습으로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이나 현장에서 시사적으로 참조해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여러 나라에서 시사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영국의 3세대 대학(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U3A) 모델이다. 이 사례는 1972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일종의 국제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는데 영국에는 1982년 캠브리지 대학 피터 라슬렛(Peter Laslett) 교수의 제안으로 본격 도입되었다. 영국의 U3A는 노년들이 소액의 연회비를 내며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활동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식, 경험, 재능, 전문성 등을 교육 또는 학습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는 자원봉사와 교육이 결합되어 있고, 교사와 학생 개념이 없다. 영국은 2011년 기준 전국 789개의 지부, 26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런던에만 1,700명 160개의 강좌가 진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8) 임영식 외,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p.3~4.  
9) 임영식 외, 같은책,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참조하여 작성.

영국의 U3A의 모델을 바탕으로 2011년 한국에서도 지혜로운학교(U3A서울)가 만들어져 2013년 기준 17개 강좌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인생나눔교실이 U3A 운영원리와 공통 분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U3A 사례는 고령화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노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조직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참여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시사적으로 살펴볼 지점이 있다.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적 방법론을 구축함에 있어도 U3A에서의 관점과 접근방법, 조직의 운영방법 등은 참조해볼만 하다.

미국에서는 1965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노인복지청이 설립되면서 전 미국사회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노인문화복지는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미국사회의 특성상 관련 비영리 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해 왔다. 이중에서도 NCA(National Council on the Aging)나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노인복지 및 문화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노인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미국의 핵심 문화예술지원기관인 NEA(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에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NEA는 노인 문화예술 관련 최근 프레임을 창의성과 노년(Creativity & Aging)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를 설치하여 관련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참여한 예술활동 또는 노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에서 창의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목록을 축적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창의성과 노년의 삶에 대한 연구 및 컨퍼런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 창의적 노년 총회(Summit on Creative Aging in America)의 주요한 아젠다로 평생학습에서의 예술 연관성, 건강한 삶과 예술, 예술친화적 공동체 디자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너무 제한된 자료로 살펴보기 했지만, NEA(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의 창의성과 노년(Creativity & Aging) 지원 프레임은 노인을 취약계층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넘어 노년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예술지원의 틀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향후 노인 문화예술교육 추진 과제

한국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매우 제한적이지만 해외 사례를 시사적으로 참조해보면서 앞으로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및 현장에서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먼저,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나 현장에서의 창의적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서도 공히 한국의 노인 세대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노인정책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노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총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친 문화적 권리이자 사회적 참여방식으로 잘 접근되지 못했다. 노인 세대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노인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발, 지원프로그램 발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노인의 문화적인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사회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의 문화적 권리는 문화적 향유자 및 생산자로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대 간의 가치문제, 노인을 위한 여가문화 부족 문제, 문화예술과정의 관심 증대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예술을 통한 창조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문화적 생산자로서 역할을 부여한다. 또한 예술을 매개로 부정적 감정을 전환시켜 주는 치료적 기능이 있으며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기영하 외, 2010). 이는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이 자아통합, 기능적 자율성, 사회참여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성공적 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박중환, 2007).<sup>10)</sup>

두 번째로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융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사회교육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서울 아젠다 : 예술교육 발전목표」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책방향을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환경 구축”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재구조화할 것을 요청한다. 유럽연합에서 정의하는 평생학습도 “개인인 시민사회 그리고 고용 및 노동 등과 관련한 지식, 기술 그리고 역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종류의 학습활동으로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 학습에 참여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EU, 2002)” 또한 OECD에서 정의하는 평생학습이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확장하고자 이용하는 모든 학습과정과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생애단계와 형식성에 따라 취학전 교육, 의무교육, 의무교육 이후 교육, 계속 직업교육 훈련, 비형식적 일반교육, 무형식 학습으로 구분한다.”<sup>11)</sup> 이와 같이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면서 국내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평생학습과 연동한 전 생애적, 통 생애적 관점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온전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인 문화정책이 독자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인에 대한 문화정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노인 관련 타 부처의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으로서 노인을 보다 섬세하게 구분하고 노인에 대한 복합적 인식이 정책적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서만 인지되는 것을 넘어 문화애호계층, 문화 매니아, 문화자원봉사, 문화동호회 등 문화를 향유하는 정도나 단위에 따라서도 지원대상의 구분이 가능해져야 하며,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노동가치의 재생산 등이 문화와 예술로 연계되는 노동 및 복지의 대상으로서도 문화예술교육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문화예술교육을 단지 노인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으로서 노인을 바라보는 좁은 관점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노인문화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프레임의 전환이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본다.

10) 임영식 외, 『2012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11.

11) 양현미 외,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분석연구』, 20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p.11~14. 참조하여 작성.



# 라운드 토론

토론 1 고영직(문학평론가, 문화예술교육 웹진 <지지봄봄> 편집위원)

토론 2 김서준(발광아트컴퍼니 대표)

토론 3 백령(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노인 문제가 아니라 노인 존재이다

고영직 | 문학평론가

2014년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한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안양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노년을 노닐다」 포럼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느낀 생각이 있다. 그것은 우리는 노년을 '문제'로서 바라보고 대처하는 데 익숙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년 '문제'가 아니라 노년 '존재'로서 보려는 우리 안의 인식의 전환이고, 이에 따른 예방적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을 「노년의 양식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양식'이라는 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먹고사는 문제로서의 양식(糧食)이고, 둘째는 품위 있는 시민들의 교양으로서의 양식(良識)이며, 셋째는 일종의 스타일(style)을 의미하는 문화형식이고 문화적 문법으로서의 양식(樣式)이다. 자유롭게 고독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의 욕망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의 양식의 기반이 없고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말할 나위 없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양식을 제대로 성찰하고, 적절한 예방적 사회정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시선과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퇴적 공간'에 쌓인 퇴적물로서 노년의 삶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글의 말미에서 내 나름대로 우리 시대 새로운 '덧론'을 제기하고자 한 것도 그런 나의 문제의식과 무관할 수는 없다.

노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나의 주장도 위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노년이란 누구든 간에 예방적 사회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이 나와 우리 안의 '사용가치'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회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사용가치'라는 관점이 중요한 것은 오로지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시장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나와 우리 안의 마음의 힘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이반 일리치가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1978)에서 우리가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자율은 무너지고 기쁨은 사그라지고 경험은 갈아지고 욕구는 좌절되는 과정에 있다」고 한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년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이른바 정책 공급자의 시선과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추미경 선생의 발제에서 확인되듯이, 최근에 시작된 노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경우 대체로 노년을 '위한(for)' 정책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술강사를 모집해 노인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거나 갖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점에서 노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및 예술강사 파견 같은 형식의 공급자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노년 스스로(by) 기획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 사람 발제자 모두 제안한 것처럼, 노년의 삶에 대한(about) 담론 형성과 정책토론회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평생학습관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는 액티브시니어들의 베이스캠프를 표방하며 2015년 3월 25일에 출범한 <워라도학교>(http://cafe.daum.net/3rd-Age) 이야기는 노년 스스로 노인을 위한 교육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 노년을 정의하는 개념 정립 자체가 어려운 만큼 <워라도학교> 출범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워라도학교> 사업의 핵심은 연령대의 특성과 지향에 맞는 강의 배치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년 스스로 내 안의 '사용가치'를 찾아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워라도학교>의 특징은 무엇보다 한두 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계별 교육과 다양한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정은 기본클래스, 전문클래스, 창작클래스로 나뉘며, 세부 과정으로 기본클래스인 <인생수업>과 전문클래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공헌 아카데미>, <시니어 전문강사 양성과정>, <우리들교실 강사 워크숍>이 있으며, 창작클래스에는 <기획강좌 월담>.

<우리들교실>, <커뮤니티> 등이 있다. 아직 첫발을 댄 단계라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종의 ‘노노케어’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자 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충북 옥천 안남면과 안내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머니학교>,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어머니학교>를 수료한 78.2세의 할머니 20여 명이 쓴 시집 『날 보고 시를 쓰라고』를 보며 숙연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이 또한 지금껏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공급 방식이 아니라 할머니들 스스로 성장해가며 동아리를 형성하고 일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끈끈해졌으며, 당신들의 필요에 의한 강좌를 개설해 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네 삶이 분절될 수 없는 것처럼 노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또한 ‘노년들끼리만’ 진행한다고 교육효과가 높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교육 공간 구성의 변화를 상상하고 실행하려는 정책적 관심과 태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뿌리와새싹>의 경우 노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노유(老幼)복합시설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대덕테크노밸리가 신도시를 분양한 후 지은 이 커뮤니티센터는 노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며 나들이를 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자연스럽게 일상을 교류하고 있다. 내가 직접 확인한 복합문화센터로서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화성나래울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 1) 한정란 선생님의 경우 노년 일반의 특성을 주로 성찰하는 내용을 글로 쓰셨다. 노년의 경우 연령효과도 중요하지만 세대별 경험 차이에 따른 세대효과(cohort effect)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세대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이 경험 차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 2) 한정란 선생님이 언급한 노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한다. 우리나라 정책사업의 경우 특정한 경로의존성을 볼 때, 교육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강조한 열번째 제안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과 중심의 평가지표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러한 평가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가 매우 궁금하다.
- 3) 추미경 선생님의 발제문의 경우 대체로 정책사업 공급자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예술강사 파견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외에 어떤 사업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가? 영국 사례에서 언급한 ‘공동체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기관들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 4) 올해 추진되는 <인생나눔교실>의 경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노년의 경우 이른바 ‘꼰대’가 되지 않고,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와 교감하며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지 자신할 수 없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우려의 시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이와 관련해 노년과 젊은 세대가 만나는 문화적 공유지대 형성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교육여행을 표방하는 미국의 엘더호스텔(www.elderhostel.org)은 여행을 통해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지식을 배우며 자원봉사도 하는 코스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인생나눔교실> 같은 정책사업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년과 젊은 세대가 만나는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교육운영을 중심으로)

김서준 | 발광아트컴퍼니 대표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그동안 어르신들과의 작업들 속에서 수많은 힘듦과 좌절을 겪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금 지탱하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처음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 유아부터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전 대상으로 예술교육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해왔기에 뭐 특별할 거 있겠어 하며 쉽고 오만방자하게 스타트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가장 어색하고 불편했던 순간이 젊은 배우가 노인 연기를 하며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며 숨 다 넘어가는 연기를 보일 때였던 거 같은데, 저 역시 노인이라는 대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노인들은 이래~’로 단정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본 우리의 노인들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젊고 열정 있고 패기 있는 새로 태어나신 젊은이였습니다.

100세 시대, 고령화, 노년의 삶, 제2의 전성기 등의 단어들에 최근 들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이 시점에 오늘의 포럼은 무척이나 필요하고 공감가고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있어 더욱 중요한 지점들을 잘 지적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지난 몇 년 간 그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겪은 사례들 중심으로 공유하며 토론을 풀어볼까 합니다.

**하나, 노인 문화예술교육 그 현장의 모습 속 다양성에 대처해야한다.**

먼저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연령의 폭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그 대상이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약 10년의 나이를 세부적으로 나누곤 합니다. 나이가 비슷해도 대부분의 수업들이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이 함께 수업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어떨까요? 저희 ‘할마미아’의 경우 만해도 최연장자와 연소자의 나이차는 만20세입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교육받는다? 아마도 노인들을 수업하는 단체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일 것입니다. 게다가 시대가 변하고 손주들 육아와 픽업 등 큰 몫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책임지게 되면서 자식을 위해 희생되어 오던 어르신 세대가 이제 손주들에게 자신들을 맞춰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여야 하나 가장 큰 복병은 손주들이라는 것.

또한 노인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여초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노인복지센터에 가면 바둑과 장기 두시는 남성 노인들이 여성보다 적지 않음에도 이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이 성별의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둘, 노인들의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인식에서 “과정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동기유발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센터에서 실버수영, 탁구, 에어로빅, 노래교실이 대다수였고 대부분이 이렇게 기량향상, 얼마나 안 틀리고 잘 쫓아가나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처음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토하시길, ‘그런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처음에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내게 시키시면 겁부터 덜덜덜 났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안의 신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런 것들을 왜 시키시고 끌어내셨는지 다 알 거 같다.’ 중간에도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때 안 그만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선생님이 안 잡아주셨으면 지금 이런 기쁨을 못 누렸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돈 주고라도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인들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 기술전달식 교육에 익숙하신, 박자 틀리지 말아야해! 동작 틀리면 안 돼!가 걱정인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이셨습니다. 청소년 대상 ‘과정중심’, ‘체험중심’의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러한 교육의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상이 어르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의 노인 세대는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세대인지라 아주 작은 것들만으로도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유발이 되어 내면의 성장 자극이 그 어떤 아이들의 성장보다도 더 크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발광아트컴퍼니의 자체만족도 조사(2013,14년 2회 실시) 결과분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본인 스스로’와 ‘주변의 권유’가 비슷비슷할 정도로 크게 적극적이지 못하셨던 분들의 “적극성”이 훨씬 높아졌으며, 만족도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받은 항목은 “나는 앞으로 계속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였고, 무엇보다도 “노래, 춤, 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항목보다도 창의성 항목들의 만족도지수가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더욱 “동기유발”과 “과정중심”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셋,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예술단체 강사와 스태프들의 자세는 어떠한 할까? 발제에서도 보듯,

노인문화에 대해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나와야하고 세분화해야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해주시고 하셨지만 막상 현장에서 어르신 대상 수업진행시 그런 것들을 실행할 강사 및 스태프 꾸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가져라! “애정”이 쉽지 않다면 “관심”부터 시작해라! 사실 이 말이 쉬운 듯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나 스태프들은 이 사업이 아르바이트로 인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 예술교육이며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이며 모든 교육은 일자리창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들 대상이 까다롭고 하더라도 노인 대상도 그 이상으로 예민하게 다뤄야합니다. 그렇게 전문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술단체인들만 ‘내가 전문인이다’라는 인지로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전문가”로써 대우해주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넷, 사업의 정체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대상의 여러가지 사업이 있으나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서울시의 각 구에 1개씩 선정, 그 지역구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기획-일반공모로 바뀌어 폭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진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 전 지역구 중심의 확실한 콘셉트가 있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다양함과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는 있으나 실례로 여러 단체 수업들을 3~4개씩 들으시는 열혈청춘들까지도 나오시며 시간될 때 문화센터 수업 들듯이, 문화예술단체들이 힘들고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쉽게 소비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업 지원 목표의 확실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지, 질적으로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 사업의 포커싱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단체들은 어르신들의 모집과 관리가 절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후죽순 비슷하게 생겨난 프로그램들도 너무나 많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갈수록 열악해져만 가는 적은 예산의 활용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이것이 과연 “예술”인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언제까지 “최고”가 아닌 “최선”의 예술교육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 다섯, 지속적인 지원 및 관심 그리고 동아리화 그리고 어르신 예술강사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의 경우 기획공모 기간 종료 후, 자생능력이 가능할까? 동아리로 발전시켰을 때 현장에서 겪는 혼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 함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릴 버리지마세요” 이 말이 그 동안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특히 예술적인 활동에 불을 지피자마자 끝나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교육적 혜택을 누리면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기대는 계속 커질 것이고 예산이 줄어들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결국 중간에 책임은 운영단체들이 짊어지게 되고 애를 먹게 될 것입니다. 세대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발제에 있었는데 서울시 지원사업을 예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각 계층별 사업이 아닌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는 없을지 그 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도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어르신 예술교육강사활동 연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 일까? 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자원봉사로 “사회공헌”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참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술전문가와 수업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과 함께 수업을 받던 동료와 함께 수업을 하는 것, 이것을 참여 어르신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하며 기존의 기량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가치지향적 체험형 과정중심의 예술통합 프로그램에서 개별적인 다른 역량 과정 없이 어르신들의 강사활동은 가능할 것인지, 또한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온전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독자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동아리 단계에서는 별도의 예술강사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활성화시켜야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필요한 예술단체들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두 발제자의 의견을 물으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합니다.

백령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돼 온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노인과 관련된 것이다. 초고령화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빈곤, 사회참여의 위축, 지위와 역할의 축소, 삶의 의미 상실, 은퇴에서 오는 허탈감 등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되었고 최근에는 빈곤율, 자살율이 OECD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의 포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애주기에서의 노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계의 관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의 노인 문화예술교육 현장 소개와 프로그램 운영에 접목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생노병사의 과정에서 모두가 겪어야 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인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문화예술교육 운영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와 지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 다양한 주체(단체와 강사)가 노인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 오늘의 발제된 글에 대한 이해와 현장(사업의 심사, 모니터링, 평가, 컨설팅 등의 참여) 속에서 발견된 노인 문화예술교육 운영에 대해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하나,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노인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이유와 내용 및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노인은 양보, 배려의 대상이나 뭔가를 배워야 하는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안 될 것이다. 은퇴자, 노인, 전업주부들은 평생의 삶의 경험이 축적된 문화예술교육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문화예술교육을 만나는 이유, 기대효과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통해 감춰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굴하고 자신의 과거 삶과 현재, 현재와 미래를 연계하여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이라는 연령의 특징만큼 이들은 사별과 이혼, 새로운 친구 사귀기, 가족 관계의 변화, 외로움, 소외감,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등 다양한 심리적 상황과 여건 속에서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은퇴한 남편과의 시간 보내기, 마음이 맞지 않는 며느리와와의 관계는 노인의 삶을 대표할 수 있으나 이들을 주체나 소재로 한 문화예술적 연계 보다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나이 듦과 성숙, 삶에 대한 성찰과 의미와 가치 부여 등의 활동으로 연계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 노인들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접근 세분화가 필요하다.** 노인의 기대, 성향, 삶의 맥락 속에서의 예술 활동의 유형,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국외 사례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예술이기에 학습자와 관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성향과 욕구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그리기, 감상하기, 합창, 연주, 연극, 뮤지컬 공연 등을 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으나 노인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예술언어를 학습하고 자기표현하고 소통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의 과정과 목표를 노인과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05년 노인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 학습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연구가 문화영역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으나 이후 노년의 삶을 담은 예술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년의 활동에 대한 고찰과 노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셋, 언급한 바와 같은 연구는 이론, 담론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단체나 강사들이 노인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관계 맺기와 라포 형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이들의 관계는 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관계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와는 다른 모습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

**넷, 노인 특화 문화예술교육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의 학습자는 정책의 대상자로 선정되고 참여자 숫자로 성과가 판단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노인 특화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부재한 상황이다.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만나는 다양한 학습자 중 하나인 노인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담론을 조성하는 전문 단체가 필요하다. 이들은 노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회복지, 문화, 교육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노인의 문화예술적 욕구와 성향을 파악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의 기반 마련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회 시대에서 특정 연령 이상의 학습자를 위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필요하기에 대한 질문을 두 발제자에게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통합사회,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장애인, 노인과 같이 특수한 상황과 여건의 학습자를 위한 격리된 문화예술교육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

발행일 2015년 5월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8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2층

T. 02)758-2000 F. 02)6008-7347

[www.sfac.or.kr](http://www.sfac.or.kr)

기획 예술지원본부장 김홍남

예술교육팀장 임미혜, 차장 김수현

©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